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이상세기

정치프리즘

경제의 힘

문화 향기

지 건길  
(동아대학교 교수·  
전 국립중증박물관장)

“

고고학 인구가 늘고 밸굴 양이 증가할수록 유적 파괴의 빈도가 높아지고 고고학의 '질'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역설적 현실이 못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나만이 갖는 아쉬움은 아닐 성 싶다.

”

## 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

그 밸굴의 성격이 전자이건 혹은 후자이건 간에 일단 지하에 매장된 채 잘 보존되고 있는 유적을 밸굴한다는 것은 설사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춘 우수한 인력에 의한 밸굴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나 다행없는 것이다. 우리가 '타임 머신'을 타고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한, 매장 당시 유적의 원래 모습

## 문화재 밸굴의 허(虛)와 실(實)

고고학을 전공분야로 선택했던 나는 학창시절부터 선학들에게서 '밸굴은 파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 왔다. 짧은 시절, 밸굴에 흔 빠져 지낼 때는 그 의미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으나 차츰 나이가 들면서 '파괴'라는 첨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에 대한 고고학적 밸굴은 그 목적과 수행방식에 따라 크게 학술(學術)밸굴과 구제(救濟)밸굴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는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위해 고고학자 자신이나 그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선호하는 유적을 택하여 스스로 마련한 예산을 들여 밸굴을 실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에 반해 후자는 각종 주거시설이나 산업시설, 또는 도로와 같은 사회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부득이 원위치에 있던 유적을 조사한 뒤에 그 자리에 당초의 계획대로 시설물을 짓게 되는 밸굴이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수혜자인 시행자측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86년부터 4년 남짓 동안 걸쳐 이루어진 이 밸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조사단들이 구역을 분담하여 동시에 밭적인 밸굴을 폐나면서 시공기시대부터 역사시대의 유적조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고학적 성과가 이루어졌다. 특히 350여기에 이르는 고인돌의 밸굴은 이 지역이 한반도 고인돌문화의 중심지임을 재삼 확인시켜준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 뒤 80년대 말에 여천공간 조성을 위한 구제밸굴에서 출토된 많은 매장문화재 가운데 특히 노령식으로 분류되는 청동기 일괄 유물들은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에서 이 지역이 갖는 고유의 독자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괄목할만한 고고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구제밸굴의 한계는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해에 천 건이 넘는 구제밸굴이 이루어지다보니 그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급 연구기관의 역량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 구제(救濟)밸굴의 한계

이와 같이 과도한 업무량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학술밸굴에서와 같이 더 이상 자신의 분야에만 매달리기 어려워져 전공과 전혀 동떨어진 유적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밸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처럼 되고 말았다.

연구기관의 갑작스런 증가로 지난날과는 달리 이 분야 전공의 졸업생들은 의지만 있으면 취직 걱정이 없다는 말이 통활만큼 시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고학 인구가 늘고 밸굴 양이 증가할수록 유적 파괴의 빈도가 높아지고 고고학의 '질'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역설적 현실이 못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나만이 갖는 아쉬움은 아닐 성 싶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